

◆ 02년 3월 고3 32~36번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의식은 어떤 사건의 문제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洞察)이요 의식이다. 그것은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져 있는 일상적 세계의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사건들의 문제점들을 꿰뚫어 보게 하며, 문제되어야 할 사건들이 문제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건들의 문제점을 들추어내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 의식의 가장 중요한 성격을 파악하게 된다. 일상성의 세계 또는 상식의 세계는 대체로 ‘물론(勿論)의 세계’다.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물론이지요.”라고 대답하는 세계가 바로 물론의 세계다. “일부 일체제가 옳습니까?”라고 물을 때 “물론이지요.”라고 대답한다든지, “주권 재민의 사상이 옳은 사상입니까?”라고 물으면 “물론 그렇고 말고요.”라고 대답할 때 일부 일체제와 주권 재민은 일상성의 세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사람들은 일상성의 세계를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특별한 의심을 품지 않는다. 때때로 그 일상성의 세계는 신성시될 때도 있다. 마치 종교인에게 있어서 절대자인 신이 그러하듯이, ‘물론의 세계’와 ‘당연의 세계’도 때때로 신비의 베일로 가려져 있고, 그것 자체가 신성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감히 아무도 그것의 ㉔ 정체(正體)에 대해서 묻고자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은 것,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 대번에 잘못된 것이거나 범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소외시키거나 제거하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일상성의 ㉕ 횡포(橫暴)다. 이러한 일상성의 세계는 한마디로 문제가 없는 세계다. 문제될 만한 것은 대체로 가려져 있지만 혹 그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즉각 제거된다. 그러므로 모두가 일상성에 대해 “지당합니다.”라든지 “물론이죠.”라고 합창한다. 이런 세계에서 현상과 사건의 문제성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문제 의식은 곧 일상성의 세계를 꿰뚫어 보는 의식이다. 이것은 모두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세계의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문제성의 정체와 그 실상을 밝혀 보려는 의식이다. 모두가 “물론이죠.”라고 응답할 때, “글쎄요.”라고 ㉖ 회의(懷疑)하면서 현상의 표피를 뚫고 그 내용을 살펴보려는 의식이다. 특히 일상의 관습이 완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 ‘물론’의 바탕과 내용을 파헤쳐 보려는 의식이다.

따라서, 문제 의식은 허위 의식을 폭로하는 행위로 연결된다. ㉗ 허위 의식이란 복잡한 현실을 짐짓 단순화시키고, 더럽고 잘못된 현실을 짐짓 아름답게 꾸며서 그럴듯하게 정리해 놓은 거짓된 현실 인식을 말한다. 허위 의식은 대체로 아름다운 ㉘ 수사(修辭)의 낱말들로 꾸며져 있어서 사람을 홀리거나 속인다. 속이 더럽고 부끄러울수록 허위 의식은 깨끗하고 떳떳한 낱말들을 동원한다. 자유, 발전, 행복, 정의, 평화 등을 앞세워 자유를 제한하고, 전체적 발전을 늦추며, 행복을 깨뜨리고, 정의를 흐리며, 평화를 파괴한다. 이럴 때 문제 의식이 요청된다. 문제 의식을 갖춘 사람은 정직이라는 말로 단장된 허위 의식의 거짓된 속셈을 꿰뚫어 본다. 문제 의식에 투철한 사람은 자유를 앞세우는 억압의 행태를 알아차린다. 그는 정의를 큰 소리로 외치는 불의

를 투시할 줄 안다. 그는 평화를 강조하는 폭력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다.

문제 의식은 지식인을 지식인답게 해 주는 일종의 ㉙ 조감(鳥瞰) 의식이며 통찰력이다. 그러기에 문제 의식이 없는 지식인은 ㉚ 와(과) 같다. 문제 의식 없이 살아가는, 자칭 지식인이 있다면 그는 한낱 지식 기사에 지나지 않고, 문제 의식 없이 학교에 다니는 젊은 지성이 있다면 그들은 한낱 직장 예비군에 불과하다. 문제 의식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는 지식인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뜻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32.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대체로 사람들은 일상성의 세계를 의심한다.
- ② 문제 의식은 일상성의 세계를 꿰뚫어 보는 의식이다.
- ③ 문제 의식은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 ④ ‘물론의 세계’에서는 사건의 문제성을 꿰뚫어 보기 어렵다.
- ⑤ 허위 의식은 현실의 참모습을 단순화시키거나 왜곡시킨다.

33. 위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삶의 좌우명을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끝까지 처음처럼!
- ② 늘 깨어 있는 삶!
- ③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 ④ 인내만이 영광에 이르는 길!
- ⑤ 노력을 이기는 천재는 없다!

34. ㉙의 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남성들이 전통을 내세우며 여성들을 차별한다.
- ② 강대국이 세계화를 내세우며 자기 잇속을 챙긴다.
- ③ 독재자가 사회 안정을 명분으로 비판자들을 탄압한다.
- ④ 지배 계급이 질서를 강조하며 피지배 계급을 억압한다.
- ⑤ 교통 경찰이 안전을 강조하며 법규 위반자를 단속한다.

35. ㉚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 ① 사랑이 식은 연인
- ② 융통성이 없는 학자
- ③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
- ④ 사업 의욕이 없는 기업인
- ⑤ 전의(戰意)를 상실한 군인

36. ㉔~㉙의 사전적 의미를 잘못 풀이한 것은?

- ① ㉔ 정체(正體) : 사물의 본디 형체
- ② ㉕ 횡포(橫暴) : 제멋대로 굴며 몹시 난폭함.
- ③ ㉖ 회의(懷疑) :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 ④ ㉘ 수사(修辭) :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밈.
- ⑤ ㉙ 조감(鳥瞰) : 높은 곳에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봄.

- 정답: 32.① 33.② 34.⑤ 35.② 36.③

[55~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적 시대 구분의 단위로서 현대라고 할 때에는 보통 제1차 세계 대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 발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를 지칭한다. 이 시기의 사회 변동의 ㉠ 추이나(이나) 그 속에서 전개된 대사건들은 이전 시기와는 분명히 다른 독특한 면모를 갖고 있다. 그 특징들 속에서 우리는 현대의 위상과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다. 우선 이 시기에는 파시즘과 나치즘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거대한 관료 조직 및 막강한 국가 체제가 개인과 사회 집단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대중을 조작하여 그 위에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전체주의 체제의 부정적 유산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세계의 여러 나라로 약간씩 형태를 달리하면서 전승되어 갔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 사회론은 이러한 전체주의 체제의 발흥 원인과 그 사회적 결과를 대중 사회의 출현과 관련시켜 보는 데서 짝이 났다고도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과학 기술의 경이로운 발달 및 생산력의 증대에 힘입어 자본주의 체제는 상대적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산업화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은 탈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운위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권은 그들 나름대로 중앙 집중적 계획 경제와 생산 수단의 국유화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제3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경제 발전을 발판 삼아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체제의 변혁을 달성키 위해 몸부림쳐 왔다. 그리하여 지난 반 세기의 세계사의 역정은 이들 세계가 엮어내는 공생과 갈등의 대파노라마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현대 사회의 ㉡ 추이를(을) 되돌아보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여전히 부와 불평등과 독점의 폐허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주의권의 거대한 실험은 결국 정치·경제·사회적 층위간의 불균형과 모순으로 인하여 근래에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왔다. 그런가 하면 종속 탈피와 민족적 자립을 이룩하려는 제3세계권의 장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리고 어느 권역이건 사회 전반의 관료 조직화와 대중화의 물결 속에 인간 주체성의 상실 및 인간 소외가 현대 사회의 주된 특질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구조 기능주의나 마르크스주의를 막론하고 거대 이론의 설명력이나 예측력은 빛이 바랄 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근대 혹은 현대가 인류에게 가한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자는 탈현대(포스트 모던)의 구호가 고창되면서, 지적·사상적인 방향의 지표가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라는 진단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인이 지향해야 할 행로와 목표는 어디에도 없는 것인가? 말 그대로 20 세기의 황혼에서 세기말적 침울과 절망의 분위기 속에 주저앉고 말 것인가? 다시 말해, 현대 사회의 미래 전망은 정녕 닫혀 있기만 한 것인가?

55.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제3 세계는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나타났다.
- ② 현대 사회를 전망해 볼 때 미래는 절망적이다
- ③ 전체주의 체제의 발흥이 대중 사회의 출현을 앞당겼다.
- ④ 과학 기술의 발달 및 생산력의 증대가 거대 이론을 낳았다.
- ⑤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는 둘 다 관료 조직화된 사회이다.

56. 위글의 핵심 어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체주의 체제의 폐해
- ② 탈산업사회의 도래
- ③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 ④ 대중 사회의 출현
- ⑤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

57. ㉠, ㉡을 문맥에 맞도록 바꾸어 쓸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 ① 추세(趨勢) | 동태(動態) |
| ② 이행(移行) | 궤도(軌道) |
| ③ 상황(狀況) | 여건(與件) |
| ④ 위세(威勢) | 위상(位相) |
| ⑤ 경향(傾向) | 행태(行態) |

- 정답: 55.⑤ 56.⑤ 57.①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생존하기 위해 각자 노동에 힘쓰다가, 축제와 같은 특정 시기가 되면 함께 모여 신에게 제의를 올리며 놀이를 즐겼다. 노동은 신이 만든 자연을 인간이 자신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숙된 과정이다. 이는 원래 자연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죄를 씻기 위해 유용하게 만든 사물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집단적 놀이가 ㉠ 바로 제의였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유용한 사물을 희생물로 바치는 제의가 광범하게 나타났다. 바친 희생물은 더 이상 유용한 사물이 아니기에 신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대인들은 신에게 바친 제물을 함께 나누며 모두 같은 신에게 속해 있다는 연대감을 느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이러한 놀이는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시간을 늘렸지만, 오히려 노동력이 소진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노동 시간을 축소하고 휴식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 휴식 시간마저도 대부분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려면 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해야 한다. 이런 소비는 소비자에게는 놀이이지만 여행사에는 돈을 버는 수단이다. 결국 소비자의 놀이가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유용한 사물인 자본을 판매자의 손 안에 가져다준다.

놀이가 상품 소비의 형식을 띠면서 놀이를 즐기는 방식도 변화한다. 과거의 놀이가 주로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놀이는 대개 참여가 아니라 구경이나 소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생산자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소비하도록 놀이 상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여행의 예를 다시 들면, 여행사는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을 마련해 놓고 있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하여 수동적으로 소비한다. 놀이로서의 여행은 탐구하고 창조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정에 그저 몸을 맡기면 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른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놀이에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성향은 비교적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하다. 젊은 세대는 놀이의 주체가 되려는 욕구가 크다. 인터넷은 그런 욕구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인터넷의 주요 특성은 쌍방향성이다. 이는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가 대다수의 사람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구경꾼이면서 참여자이며 수신자이자 송신자로 활동하며, 이러한 쌍방향적 활동 중에 참여자들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된다.

31. 위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두 개념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고 있다.
- ② 필자의 관점을 명시한 후 다른 관점과 비교하고 있다.
- ③ 다양한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개념의 타당성을 따지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두 이론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중심 화제의 성격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3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 제의와 집단적 놀이가 결합되어 있었다.
- ② 고대 사회에서는 희생 제의를 통해 자연을 유용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 ③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휴식이 상품 소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 ④ 자본주의 사회에서 놀이가 상품화되면서 놀이를 즐기는 방식도 변화되었다.
- ⑤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놀이의 주체가 되려는 젊은 세대의 욕구 충족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33.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회사원 A 씨는 축구를 좋아한다. 최근 A 씨는 근무 중 틈틈이 ㉠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축구 경기 동영상을 즐겨 본다. 회사에서는 ㉡ 일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풀라고 이를 허용한다. 주말이나 휴일 아침에 A 씨는 ㉢ 친구들과 모여 축구 시합을 하고, 저녁에는 ㉣ 경기장에 직접 가서 프로 축구 경기를 관람한다. 가끔 새벽에는 ㉤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인터넷 축구 방송을 보면서 친구들과 댓글을 달며 같은 팀을 응원하기도 한다.

- ① ㉠은 쌍방향적 놀이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은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겠군.
- ③ ㉢은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한 예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은 놀이의 구경꾼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⑤ ㉤은 친구들 사이의 연대감을 생기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34.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집에 도착하거든 바로 전화해 주십시오.
- ② 청소년의 미래는 바로 나라의 미래이다.
- ③ 마음을 바로 써야 복을 받는다고들 한다.
- ④ 우리는 국기를 바로 다는 방법을 배웠다.
- ⑤ 학생들은 모자를 바로 쓰고 단정히 앉았다.

◆ 16-9평 B형 21~24번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 절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 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 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 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대에 대한 ㉦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2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생산 활동이 사색적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 ㉡ 과학 혁명의 시대에는 활동적 삶의 위상이 사색적 삶의 위상보다 높았다.
- ㉢ 청교도 윤리는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켰다.
- ㉣ 시간-동작 연구는 인간의 노동이 두뇌노동과 근육노동으로 분리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 출현했다.

22. ㉠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 ㉠ 기계 기술은 정신 기술처럼 가치 있으며, 산업 현장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만족스럽다.
- ㉡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 괴로움과 질곡에 빠지고 말 것이다.
- ㉢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유롭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유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 ㉣ 나태는 녹이 스는 것처럼 사람을 쇠퇴하게 만들며 쇠퇴의 속도는 노동함으로써 지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 ㉤ 인간은 기계이므로 인간의 행동, 언어, 사고, 감정, 습관, 신념 등은 모두 외적인 자극과 영향으로부터 생겨났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20세기 후반 이후의 ‘후근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규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근대 사회가 ‘규율 사회’였음에 비해 후근대 사회는 ‘성과 사회’이다. 규율 사회가 외적 강제에 따라 인간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면, 성과 사회는 성공을 향한 내적 유혹에 따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결핍이 해소되고 규율 사회의 강제가 약화된다고 해서 인간이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생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규율 사회에서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다면, 성과 사회에서 그 요구는 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 착취를 통해 관철된다. 그 결과 피로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되었다는 것이다.

- ① 근대 사회에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확립된 노동 규율은 타자 착취를 위한 규율 사회의 외적 강제로 볼 수 있겠군.
- ②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증은 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기 착취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이 되면서 성과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달라지는군.
- ④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이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포착하는 견해에 반하는 것이군.
- ⑤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는 현대인의 행동은 성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내적 유혹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 ② ㉡: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씀.
- ③ ㉢: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함.
- ④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 ⑤ ㉤: 어떤 대상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 19-9평 33~38번

[33~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삶의 양식 중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 생산학파의 견해였다. 생산학파는 산업 혁명을 통해 근대 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우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춘 근대 생산 체계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각지로부터 도시로 끌어 모으는 현상에 주목했다. 또한 다양한 습속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가 되는지 탐구했다. 예를 들어, 미셸 푸코는 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맞춰 금욕 노동을 하는 유순한 몸으로 만들어 착취하기 위해 어떤 훈육 전략이 동원되었는지 연구하였다. 또한 생산학파는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안 감각과 감성으로 체험하는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했다고 고발하였다. 이렇게 보면 근대 도시는 어떠한 쾌락과 환상도 끼어들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 기계인 듯하다.

이에 대하여 ㉡ 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이 내면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학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폴린 캠벨은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

들조차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과 실제로 욕망이 충족된 상태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대 도시에서는 이 간극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 생산학파와 달리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이런 환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기대가 쾌락을 유발하여 근대 소비 정신을 복돋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근래 들어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와 소비 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의 입장을 ㉢ 아우르러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주목했던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재발견되었다.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소비 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 가져다주는 구매 행위로 축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체험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이런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근대 도시에서는 옛것과 새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등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 환상을 자아내는 다양한 구경거리도 근대 도시 곳곳에 등장했다. 철도 여행은 근대 이전에는 정지된 이미지로 체험되었던 풍경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로 체험하게 만들었다. 또한 유리와 철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 거리인 아케이드는 안과 밖,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체험을 가져다주었다. 벤야민은 이러한 체험이 근대 도시인에게 충격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충격 체험을 통해 새로운 감성과 감각이 일깨워진다고 말했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기한 구경 거리였던 영화는 벤야민에게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다. 영화는 조각난 필름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 내는 기계의 리듬을 ㉤ 떠올리게 한다. 또한 관객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 장치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참여하는 스태프는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분업화로 인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근대 도시인의 모습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을 통해 근대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체이기도 하다.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인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 서로 다른 시·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시점, 느린 화면과 빠른 화면의 교차 등 영화의 형식 원리는 ㉥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다. 영화는 보통 사람의 육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체험을 가져다준다. 벤야민은 이러한 충격 체험을 환각, 꿈의 체험에 ㉦ 빗대어 ‘시각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관객은 영화가 제공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체험함으로써 일상적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영화관에 모인 관객은 이런 체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꿈의 세계를 향유한다.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는 생산 학파와 소비학파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화된 노동자이지만 그 자체로 내면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벤야민이 말한 근대 도시는 착취의 사물 세계와 꿈의 주체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이다. 이렇게 벤야민의 견해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일면적인 시선을 ©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준다.

33.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벤야민의 주장을 기준으로, 근대 도시의 산물인 영화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② 근대 도시와 영화의 개념을 정의한 후,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밝힌 벤야민의 견해에 대해 그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 ③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벤야민의 관점을 활용하여, 근대 도시의 기원과 영화의 탄생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④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영화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⑤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한 후, 근대 도시와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드러냄을 밝히고 있다.

3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근대 도시를 근대 도시인이 지닌 환상에 의해 작동되는 생산 기계라고 본다.
- ② ㉠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성립된 근대 생산 체계가 욕망과 충족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은 근대 도시인의 소비 정신이 금융주의 정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 ④ ㉡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로 전락한 대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존재라고 본다.
- ⑤ ㉠과 ㉡은 모두 소비가 노동자에 대한 집단 규율을 완화하여 유순한 몸을 만든다고 본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객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 ② 영화가 다루고 있는 독특한 주제에서 발생한다.
- ③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에서 유발되는 충격과 유사하다.
- ④ 촬영 기법이나 편집 등 영화의 형식적 요소에 의해 관객에게 유발된다.
- ⑤ 육안으로 지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영화적 체험으로부터 발생한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는 1920년대의 근대 도시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베르토프는 다중 화면, 화면 분할 등 다양한 영화 기법을 도입하여 도시의 일상적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이 영화는 억압의 대상이던 노동자를 생산의 주체이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묘사한다. 영화인도 노동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베르토프는 영화 속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베르토프는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를 통해 영화가 편집의 예술임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영화관에서 신기한 장면에 즐겁게 반응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 줌으로써 영화가 상영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 ① 베르토프의 영화는 분업화로 인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외된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생산학파가 묘사하는 혼용된 노동자의 모습과는 다르군.
- ③ 베르토프가 다양한 영화 기법을 통해 일상 공간을 재구성한 것은 벤야민이 말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유발하겠군.
- ④ 베르토프가 사용한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는 벤야민이 말하는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를 보여 주는군.
- ⑤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관객의 모습은 영화관에서 신기한 구경거리인 영화를 즐기는 근대 도시인을 보여 주는군.

37. **벤야민이 말한 근대 도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의 공간과 꿈꾸는 공간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 ② 소비 행위가 노동자에게 복합 체험을 가져다주는 공간이다.
- ③ 이질적인 것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가는 공간이다.
- ④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을 통해 노동의 소외가 극복된 공간이다.
- ⑤ 집단 규율을 따라 노동하는 노동자도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38.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봉합(縫合)하려는
- ② ㉡: 보증(保證)하는
- ③ ㉢: 연상(聯想)하게
- ④ ㉣: 의지(依支)하여
- ⑤ ㉤: 개편(改編)하는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구나 한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은 ‘일’, 즉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

로크는 노동을 ㉠ 소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 않은 유일한 것이 신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그 신체의 활동인 노동 역시 그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상태인 어떤 사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공유물에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로크는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로크에게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크는 만약 어떤 개인이 신체를 사용하여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 그것은 ㉡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헤겔은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며,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꾸어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며 생명을 보전한다고 보았다. ㉢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인데, 객체의 자립성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되어 주체에 알맞게 변화된다. 한편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한다.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무관한 것에서 인간을 위한 노동 산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헤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라 하였다.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리·고립되어 있다가 노동을 통해 노동 산물 속에서 통일되어 가며,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의식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헤겔은 노동 산물이 주체의 ㉤ 소유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도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에 인간적 형식을 부여

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 구체적 노동 산물이 된다.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 낸 노동 산물에서 ㉦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 통일의 방법이자 인간의 자아실현 과정이라 주장한 것이다. 다만 그는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며,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실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37. 밑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로크는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한 신의 의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② 헤겔은 인간이 동물과 달리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바꾸는 목적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③ 헤겔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어 얻게 되는 결과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④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⑤ 마르크스는 노동이 주객 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회적 구조의 한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인간을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 ② ㉠과 ㉣은 모두 인간의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하고 있다.
- ③ ㉠은 이타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은 이기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강화하는 반면, ㉣은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강화한다.
- ⑤ ㉠은 공유물의 존재에 의해 보장되는 반면, ㉣은 주객 통일의 완성에 의해 보장된다.

39. 윗글의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캐릭터 아티스트를 꿈꾸는 A씨는 관련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예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B사에 입사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몇몇 캐릭터만 반복적으로 그려야 하는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캐릭터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C사로 직장을 옮겼다. 이후 그는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를 마음껏 변용해 그리는데 동시에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작하게 되었다.

- ①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체 속에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겠군.
- ②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 노동 산물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 ③ A씨가 제한된 캐릭터를 그리는 노동에 염증을 느꼈던 이유는 자기의식 확보에 대한 갈증 때문이겠군.
- ④ A씨가 직장을 옮긴 것은 노동을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겠군.
- ⑤ A씨가 예술 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은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킨 시기였겠군.

40. 윗글과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제레미 리프킨은 첨단 과학 기술이 생산 수단에 접목되는 상황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을 예언했다. 그는 노동의 종말이 긍정적으로는 여가적 삶의 증대를, 부정적으로는 대량 실업으로 인한 정체성의 시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대량 실업의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 부분의 일자리 공유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① 윗글과 <보기> 모두 노동이 인간의 정신보다 신체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군.
- ② 윗글과 <보기> 모두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노동이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군.
- ③ 윗글의 노동의 한계는 <보기>의 노동의 종말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겠군.
- ④ 윗글의 노동의 기능은 <보기>의 노동의 기능과 대립하고 있군.
- ⑤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군.

41. 문맥상 ㉠ ~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공유물에 참가한 노동이 아니므로
- ② ㉡: 자연을 인간에게 알맞게 바꿀 때
- ③ ㉢: 객체가 지닌 자립성을 일부 수용하면서
- ④ ㉣: 노동을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 확보의 계기로 인정하지만
- ⑤ ㉤: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객관화하는 능력을

◆ 23년 3월 고2 26~30번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출퇴근에 대한 관념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집과 일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전근대 사회와 달리 19세기 이후의 도시적 삶에서는 주거를 위한 사적 공간과 노동을 위한 공적 공간이 분리되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사적 공간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곳은 공적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이 둘의 관계는 내부와 외부, 실내와 거리의 관계에 대응된다.

게오르크 짐멜은 대표적인 사적 공간인 실내의 공간적 의미를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짐멜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외적 자극의 과잉으로 인해 신경과민에 ㉠ 빠지게

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내면으로의 침잠이라고 설명하였다. 외부와 차단된 실내는 내면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짐멜은 개인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실내에 부여하였다. 19세기에는 실내를 가구와 공예품으로 빈틈없이 장식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그는 다양한 양식을 지닌 사물을 취향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일대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 양식이라는 보편적인 표현 형태를 매개로 하는 공예품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실내에 대한 짐멜의 설명은 도시적 삶이 가져오는 불안과 몰개성을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려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한다. 실내가 개인의 은신처이자 일상의 심미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거주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로운 개성 표현을 보장하는 실내의 설계가 당시 건축의 주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하였다.

발터 베냐민은 실내 장식에 집착한 19세기의 주거 문화를 ‘주거 중독증’으로 표현하면서 이는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개인적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데 대한 보상 심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베냐민은 실내가 사회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잃어가면서 점점 더 인위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그곳에서의 은둔은 공적 공간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는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프를 딴 가구와 공예품들의 조합을 통해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19세기의 실내 풍경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실내는 거주자를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실내에 대한 베냐민의 비판적 고찰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를 문제 삼는 데로 이어지는데, 이때 베냐민이 주목한 것은 파리의 ‘파사주’이다. 파사주는 몇 채의 건물을 잇는 통로 형태의 상가로, 베냐민에 따르면 유행의 리듬이 지배하는 최초의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이다. 유행은 새로운 것을 부단히 연출함으로써 상품을 향한 욕망을 재생산한다. 서로 마주 보는 상점들이 늘어선 구조는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아 소비를 부추겼다. 또한 파사주는 건축학적으로 거리와 실내 사이에 위치하는 ‘사이공간’이다.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파사주에서는 외부와 내부가 혼동되는 경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적으로 공적이지도 않고 사적이지도 않은 중간 영역의 존재는 경계 해체의 단초를 제공한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봉하는 낡은 개념을 대신할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면서, 베냐민은 신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였다. 1920년대에 등장한 신건축은 산업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미학화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띤다. 베냐민은 공간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하였다. 신건축에서는 철골을 재료로 사용하면서 벽을 제거하는 설계가 가능해져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빛이 투과하는 유리 사용의 확대는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비해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과거의 건축 양식들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지어졌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베냐민의 설명이다. 이처럼 베냐민은 파사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외부로부터 차단된 ‘그릇 속에서의 삶’이 지배했던 19세기에서 ‘관계와 투과’의 원리가 지배하는 20세기로 넘어가는 문지방의 의미를 파사주에서 발견하였다.

2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축 재료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건축사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 ② 주거 문화에 대한 관점이 기술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밝히고 있다.
- ③ 특정 도시의 다양한 사회상을 제시하고 이를 시대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④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대비하고 이들 공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각각 분석하고 있다.
- ⑤ 실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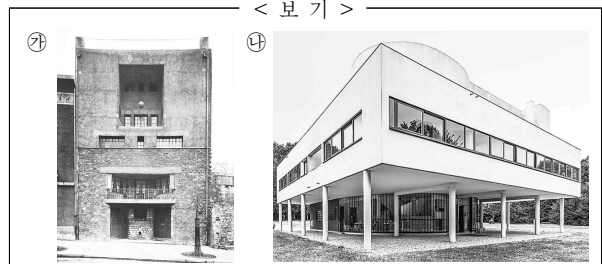
27.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거와 여가를 구분하면 일상의 심미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② 신경과민 상태의 개인이 내면을 보호하려는 자구책이라고 보았다.
- ③ 양식화된 공예품의 조합에 따라 개인의 개성이 표현된다고 보았다.
- ④ 양식의 보편성을 매개로 평온함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도시적 삶에서 오는 자극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면으로의 침잠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28. 윗글의 베냐민의 관점에서 본 '과사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행의 교체를 통해 욕망을 끊임없이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②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상점들이 배치된 공간이다.
- ③ 거리와 실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 ④ 최신 기술과 소재에 부합하는 새로운 건축 양식을 사용하여 지어진 공간이다.
- ⑤ 사적 공간에서 칩거하는 시대에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통합을 지향하는 시대로 이행 중임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는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로스가 지은 '차라 하우스'이다.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가구, 공예품 등을 배치하기 좋도록 건물의 내벽이나 천장, 바닥 등은 장식 없이 간결하게 마감되어 있다. 건물의 한쪽 면에만 배치된 창을 통해 외부를 차단하고, 채광을 조절하여 은신처의 아늑한 느낌을 유지한다. ㉢는 프랑스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지은 '빌라 사보아'로, 신건축을 대표하는 주택이다. 철골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수평으로 넓게 퍼진 창은 내부를 넘어 외부 풍경으로 열려 있는 공간을 구현하였다.

- ① 채광을 조절하여 아늑한 느낌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에 대해, 베냐민은 외부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겠군.
- ② 건물의 한쪽 면에만 창을 배치하여 외부와 차단되도록 설계된 ㉡에 대해, 짐멜은 거주자가 내면을 지키기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겠군.
- ③ 장식 없이 간결하게 마감되어 거주자가 취향에 따라 꾸밀 수 있도록 설계된 ㉡에 대해, 짐멜은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겠군.
- ④ 수평으로 넓게 퍼진 창을 통해 외부를 향해 개방되도록 설계된 ㉢에 대해, 베냐민은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추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겠군.
- ⑤ 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구조를 통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도록 설계된 ㉢에 대해, 짐멜은 도시적 삶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겠군.

30.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고 말았다.
- ② 어디서 묻었는지 얼룩이 잘 빠지지 않았다.
- ③ 중요한 회의니까 오늘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 ④ 그동안 잘 진행되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 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의 지원 서류가 빠지고 없었다.

◆ 06년 10월 고3 42~46번

【42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신분 질서 등과 같은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 ‘자유’ 등의 관념을 자각하게 된다. 하지만 새롭게 얻게 된 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에로의 자유’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근대 이전까지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영위하면서 나름대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던 인간들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작용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적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유는 얻었지만 그로 인한 불안감과 고독감은 더욱 증대된 것이다.

근대 이후 인간들은 이러한 불안과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인 양태이다. 이는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으로, 사라진 ㉡ 제1차적인 속박 대신에 새로운 ㉢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때로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

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견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형태는 불안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양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도피의 또 다른 심리 과정은 외부 세계에 의해서 그에게 부여된 인격을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스스로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된다. 나와 외부 세계 간의 모순은 사라지고 그와 함께 고독과 무력감을 두려워하는 의식도 사라지게 된다. 개인적 자아를 포기해버린 자동인형이 되어 주위의 다른 자동인형과 동일하게 된 인간은 더 이상 고독과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는 자아의 상실이라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는 부단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불안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의 속성상 인간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㉔ 속박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가? 개인이 하나의 독립된 자아로서 존재하면서도 외부 세계와 ㉕ 합치되는 적극적인 자유의 상태는 없는가?

‘자발성’은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된다.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외부 세계에 새롭게 ㉔ 결부시키기 때문에, 자아의 완전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극적인 자유는 개인을 고독한 존재로 만들며 개인과 세계와의 관계를 ㉔ 소원하게 만들고 자아를 약화시켜 끊임없는 위협을 느끼게 한다. 자발성에 바탕을 둔 적극적 자유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㉔ 내포되어 있다. 개인적 자아보다 더 높은 힘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그의 생활의 중심이자 목적이라는 원리와 인간의 개성의 성장과 실현은 그 어떤 목표보다 우선한다는 원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에 더하여 인간이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질 때 근대 이후 인간을 괴롭히던 고독감과 무력감은 극복될 수 있다.

42 글쓴이가 위 글을 소개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부정적인 인간상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미래의 인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 ② 근대 이후 획득한 자유를 포기하려는 현상의 원인과 그 심리 과정을 밝히고 문제의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 ③ 근원적 불안과 고독감을 해결하려는 근대 이후의 노력을 제시하고 운명에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하려고 하였습니다.
- ④ 고독감과 불안감이 초래하는 부작용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 ⑤ 근대 이후 나타난 부정적인 인간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근대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야 함을 역설하고자 하였습니다.

43 ㉔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삶의 태도는?

- ①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이나 정의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태도
- ②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신뢰하는 태도

- ③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
- ④ 자신의 직업에 대해 천직 의식을 가지고 임하기보다는 자신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직업으로 전전하는 태도
- ⑤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보다 각종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통해서 얻은 삶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태도

44 위 글로 보아, ㉔과 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㉔은 근대 이전, ㉕은 근대 이후에 찾아볼 수 있다.
- ② ㉔은 이미 주어진 것인데 비해 ㉕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 ③ ㉔은 자유가 부재한 상태이고 ㉕은 자유를 포기한 상태이다.
- ④ ㉔은 안정감과 소속감, ㉕은 고독감과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 ⑤ ㉔은 소극적 자유, ㉕은 적극적 자유의 실현으로 해결된다.

45 <보기>는 어떤 소설의 줄거리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의미를 탐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울에서 살던 ‘나(한병태)’는 Y읍의 한 국민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그곳에서는 학급 반장 엄석대가 담임 선생님의 두터운 신임과 아이들의 절대적 복종을 받으며 군림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석대에 대한 복종의 정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처음에 ‘나’는 그 현실에 대해 저항해 보지만, ‘엄석대’의 힘에 눌려 달리 대항해 볼 방도를 찾지 못한다. ‘나’는 엄석대의 폭력·위압·비행을 담임 선생님께 고발하지만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인식되어 배척받고 소외당한다. 결국, ‘나’는 ‘엄석대’에게 굴복하고 동조하며 그의 시혜를 받게 된다. 6학년이 되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 스스로 잘못된 질서를 무너뜨리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엄석대 체제는 몰락하게 되고, 학급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한다.

- ① 6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의 ‘자발성’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② 엄석대가 힘으로 아이들을 굴복시키는 모습은 일종의 ‘권위주의적 양상’을 띤 ‘도피’에 해당한다.
- ③ 처음에 저항하던 ‘나(한병태)’는 결국 다른 아이들과 동일한 모습을 지닌 ‘자동인형’으로 전락한다.
- ④ 학급 아이들이 엄석대에게 복종하는 행동은 ‘소극적 자유’가 실현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다.
- ⑤ ‘나(한병태)’의 좌절은 한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외적 여건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6 ㉔~㉕를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㉔ : 봉건질서의 붕괴로 노비들이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 ② ㉕ : 그의 생각은 내 생각과 합치되어서 일하기가 수월하다.
- ③ ㉔ : 그는 권력가와 결부하여 출세하려고 애를 썼다.
- ④ ㉔ : 나와 소원하게 지내던 그가 별안간 나를 찾아왔다.
- ⑤ ㉕ : 그의 말 속에 내포된 의의가 몹시 궁금하였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없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

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들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며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③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 ④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였다.
- ⑤ 개체화 현상에 대한 정의의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하였다.

22.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 ②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한다.
- ③ 개인의 거주 공간이 가족 공동의 거주 공간에서 분리되는 추세도 포함한다.
- ④ 벡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유대를 모색하게 하는 조건이다.
- ⑤ 바우만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이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위험 요소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 ② ㉡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체의 속성에서 유추하여 사회에 적용한 개념이다.
- ③ ㉠과 ㉡은 모두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 ④ ㉠과 ㉡은 모두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 ⑤ ㉠과 ㉡은 모두 위험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쫓아내거나 몰아냄.
- ② ㉣: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 ③ ㉤: 겉으로 나타냄.
- ④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 ⑤ ㉦: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6~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는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하여 합리적 이성을 통해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 한 이념이다. 이는 17세기 과학 혁명과 함께 근대의 시작을 알리며,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난 서구인들에게 이성에 기초한 사회야말로 인류에게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아도르노는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㉔ 정후만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며 계몽에 대해 다른 입장을 제시하였다.

아도르노는 계몽의 전개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에 대한 지배’에서,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자연에 대한 지배는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다. 뉴턴에 의해 완성된 근대 과학 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과 환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였다. 이를 무기로 인간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하여 자연에 맞서는 집단적 힘을 키움으로써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되면서 계몽의 두 번째 단계인 인간에 대한 지배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이성은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된다. 이는 합리성이라는 ㉕ 미명 아래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전체가 도구적 이성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관리되면서, 개인은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한 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사회는 점차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자연과 인간 사회의 지배자가 된 인간은, 계몽의 마지막 단계로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지배하게 된다. 내적 자연이란, 감정이나 욕망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를 말한다. 이는 비합리적이지만 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라고 여겨졌으므로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만 했다. 역설적이게도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인간 스스로에 대한 폭력적 지배로 ㉖ 귀결된 것이다. 그로 인해 인간은 존재의 허무감이나 자기 소외로 인한 불안과 절망을 감당해야 했다. 아도르노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의 일화를 계몽의 전개 과정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알레고리*로 보고 그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아도르노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을 계몽의 전개 과정, 즉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되어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보았다. 특히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은, 지배 논리로 전화(轉化)*된 근대 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㉗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씨가 자라난다.”라며 애도하였다.

* 알레고리: A를 말하기 위해 B를 사용하여 그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A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 전화: 질적으로 바뀌어서 달리 됨.

(나)

고대의 신화, 그리고 중세의 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근대 서구인들에게 이성은 인류를 구원할 빛이자 진리였다. 그러나 이성을 ㉘ 맹신한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문명의 병폐를 경험한 유럽인들은,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던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은 사회·정치적 긴장 상태에 항거하며, 그동안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예술 운동을 표현주의라고 부른다.

표현주의는 한 마디로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의미이다. 기존의 사실주의 회화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반면, 표현주의 회화는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습이 아닌 작가의 감정이나 내면 등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표현주의 화가인 마티스는 『화가 노트』에서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표현이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표현주의는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색의 경우, 각각의 색감이 주는 주관적 느낌을 통해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려 하였다.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한 색은 무시된 채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되었다. 또한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강렬한 감정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고 거친 붓놀림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표현주의는 전쟁 이후 사회의 불안감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을 화폭에 담아내었다.

표현주의는 ㉙ 도외시되어 온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훗날 선이나 형, 색 등의 조형 요소를 통해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현대 추상 미술이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 아방가르드: 기성의 예술 관념이나 형식을 부정하고 혁신적 예술을 주장한 예술 운동.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대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 ②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 ③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근대 사회의 특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분석한 두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근대 사회의 과학 혁명을 이어 가기 위한 당시 사람들의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21. ㉠과 같이 말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몽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을 옹호하고 있다.
- ②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하고 있다.
- ③ 신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④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인간의 집단적 힘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 ⑤ 근대 문명의 추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2. (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아도르노는 인간을 유혹해 제물로 삼는 세이렌을 자연의 위협으로 보고, 오디세우스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계몽의 전개 과정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세이렌의 일화

바다 요정 세이렌은 섬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유혹해 제물로 삼는다. 세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섬을 지나기 위해 ㉠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노를 저어 섬을 지나갈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 ㉡ 아름다운 노랫소리의 유혹에 빠지려는 욕망을 스스로 억압하기 위해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세이렌의 섬을 지날 때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이성을 잃고 풀어 달라고 애원하지만, 부하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힘차게 노를 저어 무사히 섬을 지나간다.

㉠

㉡

- | | |
|----------------|--------------|
| ① 인간에 대한 지배 | 자연에 대한 지배 |
| ② 인간에 대한 지배 |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
| ③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 인간에 대한 지배 |
| ④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 자연에 대한 지배 |
| ⑤ 자연에 대한 지배 | 인간에 대한 지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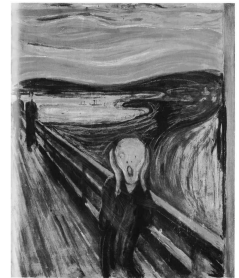
23.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 이성에 회의를 느낀 유럽인들은 인간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② 표현주의는 전쟁을 경험한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예술 운동이다.
- ③ 마티스에 의하면 표현의 의미는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④ 표현주의는 대상의 외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까지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⑤ 표현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혁신적인 예술 운동이었다.

24. (가)의 '아도르노'와 (나)의 '표현주의'의 관점에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표현주의 작가인 뭉크의 작품 「절규」에서는, 해골의 형상을 한 남자가 공포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 뒤로 핏빛으로 물든 하늘과 검은색 강물을 꿈틀거리듯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존재의 허무감에서 오는 불안과 고통을 감상자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뭉크, 「절규」

- ① (가): 작가가 표현하려고 한 감정은 근대 이성에 의해 억눌려 온 인간의 내적 자연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 작가가 전달하는 불안과 고통은 이성이 팽배했던 근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 허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나): 해골 형상과 꿈틀거리는 강물은 작가가 느끼는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나):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적 전통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감상자도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 강물의 검은색은 실제 색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느끼는 고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겉으로 나타나는 낱새.
- ② ㉡: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
- ③ ㉢: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룸.
- ④ ㉣: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일.
- ⑤ ㉤: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함.

◆ 09 LEET(예비) 언어이해 5~7번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계몽된 현대 사회에서 이성이 설정한 최고의 목적은 ‘자기 보존’이다. 그 결과 자연은 목적 없는 단순 물질이자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오랫동안 자연의 지배를 받아 왔던 인간이 이제 자연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성 자체가 도구화됨으로써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된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진행된 인간의 승리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고 진단한다.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그는 우선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을 구별하고 후자를 다시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으로 나눈다.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진행된다는 호르크하이머의 명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인간에 의한 외적 자연 지배는 내적 자연에 대한 억압을 수반한다. 인간은 외적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을 기계처럼 다루듯이 자기 자신도 도구적 이성에게 해 작동되는 기계처럼 다루어야 한다. 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자아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적 자연을 철저하게 억압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

추상적 자아에 의한 내적 자연의 지배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지배 구조가 자아에게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제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보존과 성공을 위해 인간이 자신의 내적 자연까지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냉혹한 지배자로부터 혹사당한 경험에서 벗어나려는 비극적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외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은 인간의 본래적 특성보다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외적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억압의 주체인 이성과 자아에 대한 ‘원한 감정’을 더 키워 간다. 특히 이중적 억압의 희생자로 전락한 다수의 대중이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대중은 한편으로 자신의 자연적 충동을 스스로 억압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다 성공적으로 내적 자연을 통제한 사람들에 의해 지배받는다. 이와 같이 억압받은 대중의 내적 자연이 억압의 주체인 도구적 이성에게 대해 품은 원한 감정은 폭동의 잠재력이 된다. 일반적으로 원한 감정은 그것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파괴 욕구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듯 타인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킨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를 ‘자연 폭동’이라고 부른다. 자연 폭동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파괴적 공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처음 본 사람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파괴의 대상은 이처럼 언제나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르크하이머는 여기서 현대의 파시즘이, 대중이 품고 있는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적 파시즘은 내·외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체제에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포섭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게 대중을 착취한다. 예를 들어 나치는 도구적 이성에게 의해 희생된 대중들이 가진, 이성에게 대한 원한 감정을 유대인을 향한 자연 폭동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러나 자연 폭동은 억압된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했다. 도구적 이성의 전면화에 대항하는 자연적 인간들의 야만적 폭동은 표면적으로는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하였으며 내적 자연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호르크하이머는 반이성적 자연 폭동은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이성을 거부하는 자연 폭동은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족쇄를 채우는 데 이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족쇄에서 벗어나려면 반이성적 자연 폭동에 의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자연의 대립물인 이성이 먼저 비판적 사유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5. 위 글의 ‘자아’, ‘이성’, ‘자연’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 ① 외적 자연은 추상적 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
- ② 나에게 다른 사람은 외적 자연이면서 인간적 자연이다.
- ③ 나는 자아가 없는 내적 자연으로서 기계적으로 살아간다.
- ④ 과거에 자연이었던 것이 이제는 자연이 아니며 자아도 아니다.
- ⑤ 내적 자연이 자아를 지배한다면, 외적 자연은 이성을 억압한다.

6.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또 다른 형태이다.
- ② 자연적 욕망을 강하게 억제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은 원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인간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미화될 수 있다.
- ④ ‘자연 폭동’은 전체주의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권력을 강화한다.
- ⑤ 내적 자연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 현대인은 외적 자연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7. 위 글에 제시된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한 것은?

- ① 이성이 비판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면서 이성의 비판적 활동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이미 사라진 것을 있다고 가정하는 자기 모순이다.
- ② 개인적인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부터 사회적 억압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개별을 보편으로 성급하게 환원시키는 일반화의 오류이다.
- ③ 자연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은 자연 중심 사상을 가지고 이성을 격하하는 자기 기만이다.
- ④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주장은 자연이 기계처럼 작용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명제를 가정한 허구이다.
- ⑤ 자연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비판은 ‘계몽’이라는 논점에서 이탈하고 있다.

◆ 09 LEET(예비) 언어이해 22~25번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시대의 공중(公衆)에게 주요한 ‘쟁점’은 무엇이며 사적 개인들에게 핵심적인 ‘고민’은 무엇인가? 쟁점과 고민을 정식화(formulation)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가운데 이 시대의 특징적 경향에 의해 위협받거나 지지받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위협받는 경우든 지지받는 경우든 우리는 어떤 독특한 구조적 모순이 그에 관련되어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사람들이 일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안녕’을 경험한다. 일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개인적 고민이나 공적인 쟁점으로 ‘위기’를 경험한다. 만일 그들의 모든 가치가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은 공황이라는 총체적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전혀 인식조차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것은 곧 ‘무관심’의 경험이다. 만약 그 경험이 사람들의 모든 가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냉담함이 되어 버린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소중하다고 의식하지 않지만 위협은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경우를 가상해 보자. 그것은 ‘불안’과 초조의 경험이며 만일 그것이 완전히 총체적인 것이라면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이 된다.

이 시대는 아직도 이성의 작동과 감수성의 활동이 정식화되어 있지 않은 불안과 무관심의 시대이다. 개인의 삶에서는 가치와 위협에 따라 정의되는 고민 대신 모호한 불안이라는 불행을 겪을 때가 많으며, 공중의 삶에서는 명백한 쟁점 대신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는 혼란스러운 느낌이 많다. 위협받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을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진술되지 않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미결정의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 과학의 문제로 정식화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에는 당시의 경제 문제가 일련의 개인적 고민인 동시에 하나의 경제적 쟁점으로 존재했다는 점에 의문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한 이러한 논의에서 마르크스의 견해와 그의 작업에 대한 다양하고 승인되지 않은 재정식화는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접근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의 개인적 고민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위협받고 있는 가치를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존중하였고, 그것을 위협하는 구조적 모순도 분명해 보였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광범위하고도 심각하게 경험했다.

그 당시야말로 정치적인 시대였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위협받고 있는 가치가 가치로 널리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적인 불안이 정식화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으며, 수많은 공적인 불안과 엄청난 구조적인 중요성을 갖는 많은 결정들이 공적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 이성과 자유 등과 같은 고유의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안 그 자체가 고민이며 무관심 자체가 쟁점이다. 그리고 바로 불안과 무관심이라는 이러한 조건이야말로 1950년대의 현저한 특징이다.

[A]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현저한 특징이기 때문에, 관찰자들은 이것을 정식화해야 할 문제 자체가 변화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1950년대의 문제나 심지어 위기조차도 경제라는 외적인 영역으로부터 이제 개인적 삶의 질에 관련된 것으로 이전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는다. 사실상 개인적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아동노동이 아니라 만화책이, 빈곤이 아니라 대중여가가 중심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사적 고민들뿐 아니라 수많은 중대한 공적 쟁점이 '정신 병리학'에 입각하여 서술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현대 사회의 중대한 쟁점들과 고민들을 회피하려는 애처로운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진술은 흔히 서방 사회에, 그중에서도 미국 사회에만 국한된, 따라서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무시하는 국지적이고 편협한 관심사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흔히 그것은 개인의 삶을, 그 속에서 삶이 영위되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제도로부터 자의적으로 분리시킨다.

따라서 사회과학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정치적·지적 과제는 이 시대의 불안과 무관심의 요소를 명백히 밝혀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문화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과학자에게 부과하는 핵심적인 요구이다. 사회 과학이 현대라는 문화사적 시대의 공통분모가 되며 사회학적 상상력이 우리들 모두의 가장 진요한 정신적 자질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제와 요구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 밀스, 「사회학적 상상력」 -

22.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 현실을 분석하고 있다.
- ② 사회를 보는 관점을 분류하고 각 관점들의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 ③ 시대의 대표적 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시대의 경향을 탐구하고 있다.
- ④ 현대 사회 문제를 서술하는 대립되는 견해들을 비교하여 조화를 피하고 있다.
- ⑤ 사회 과학의 구체적인 탐구 방법을 비교하고 효과적인 탐구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23. 글쓴이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시대의 특징인 불안과 무관심이 공적 쟁점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고민이며 쟁점이다.
- ② 1930년대에는 경제 문제가 쟁점이었으나 1950년대에는 개인적 삶의 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 ③ 1930년대의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한 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관점이 주도적인 접근 방법이었다.
- ④ 쟁점과 고민을 정신 병리학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제도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 ⑤ 사회 과학은 위협받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24. '가치'와 '위협'에 대한 위 글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존중하는 가치가 위협받을 때 사람들은 냉담함을 경험하게 된다.
- ② 무관심은 존중하는 가치를 의식하지 않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 생겨난다.
- ③ 소중한 가치가 위협받는 위기는 개인의 차원이나 공중의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다.
- ④ 존중하는 가치를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총체적인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사람들은 공황을 경험하게 된다.
- ⑤ 존중하는 가치에 대한 의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 사람들은 안녕을 경험하게 된다.

25. [A]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 ①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이전시켜 이해하려는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
- ② 개인적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공적 쟁점보다 사적 고민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③ 사적 고민을 이해하려면 사회 제도와, 그 사회의 불안과 무관심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④ 공적 쟁점은 서방 사회 전반의 문제이지만 사적 고민은 미국 사회에 국한된 문제이다.
- ⑤ 제도적 차원의 중대한 쟁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적 고민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29~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다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 소멸되어 버리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실존적인 불안은 세상의 모든 개체들이 다른 모든 개체들과 수평적 모순 관계 속에, 그리고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미지의 절대적 존재와 수직적 모순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수평적 모순’은 개체들 간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뜻하며, ‘수직적 모순’은 절대적 존재가 개체에게 늘 알 수 없음으로 남아 있어 비롯되는 갈등을 뜻한다. 이 실존적 불안에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폴리스가 형성되기 전의 고대 그리스에서 절대적 존재는 각 개체에게 미지(未知)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폴리스가 형성된 후의 서양 철학에서는 이 절대적 존재에 대해 규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성의 힘을 통해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 수직적 모순과 수평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의 본질에 해당하는 보편적 원리를 밝히면 이를 통해 개체들의 다름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모든 개체들이 모순이 없는 체계 속의 정당한 구성 요소들로 규정됨으로써 개체의 정체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보편적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체들의 이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고 논리적 정당화의 과정을 통해 다투는 방식인 ‘쟁론’이 중요해졌다.

중국 상고 시대의 경우에도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는 미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춘추 시대 이후 공자의 사상을 ㉡ 계승한 학자들의 관심은 절대적 존재와의 수직적 관계로부터 인간과 다른 인간들과의 수평적 관계인 인아(人我) 관계로 ㉢ 이동해 갔다. 그들은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외면하였고 다툼을 일으키는 수평적 개체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했다. 그들은 집단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인(仁) 또는 예(禮)와 같은 구체적인 도덕적 가치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체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체보다 집단의 질서를 우선시하여 그 집단의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한 집단에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에 따르며 자신을 드러내기를 삼가는 방식인 ‘장파’가 중요해졌다.

이 두 방식은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과 해결의 과정이 모두 다르지만 인간이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체가 끝없이 답을 내려도 그것이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후자는 불안을 ㉣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외면하고 집단 내에서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해결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두 방식은 도시 문명이 본격화되며 성곽안의 공간에서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에 고안된 인간 중심적인 방식이다.

반면 이들과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이 있다. 가장 원시적인 이 방식은 개체에게 다가오는 수직적, 수평적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며,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둔다. 개체의 능력으로 절대적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도 자체가 무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개체 간의 모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각 개체는 모두 절대적 존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으므로 개체들은 절대적 존재로부터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자신을 맡기고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간다. 여기서 ‘카리스마’는 절대적 존재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을 뜻한다. 개체들은 자신이 받 딛고 살아가는 환경에 맞춰, 카리스마를 부여받아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에 임시적으로 기생(寄生)하며 그 대상의 변화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이 방식은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지도 외면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실존적 불안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제각각 기생하는 것을 곧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 살아간다.

앞의 두 방식과 비교할 때 이 방식의 특징은 모순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과 ㉤ 개체의 정체성을 임시적인 것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양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쟁론이나 상보를 중시하는 방식이 최근 2, 3천 년 이래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인간 중심의 도시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 방식은 인간이 지금껏 거쳐 온 몇 십만 년의 시간과 삶 속에서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존재 양식으로 온몸에 각인해 온 야생의 논리라 할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 월등한 지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동물의 특화된 생존 능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29.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두 방식을 비교하여 분석한 후 또 다른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실존적 불안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여 사회 변화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③ 실존적 불안의 상반된 양상을 사례로 들어 여러 학설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실존적 불안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 ⑤ 실존적 불안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나열한 후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국의 상고 시대에는 수직적 모순에 대한 해결보다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했다.
- ② 폴리스 형성 이전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 ③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원시적인 방식이다.
- ④ 폴리스 형성 이후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와 개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순을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 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은 개체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31. ㉠과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쟁론은 절대적 존재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상보는 절대적 존재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확립되었다.
- ② 쟁론이 개체 간 다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면, 상보는 개체 간 다름을 아우르는 동일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 ③ 쟁론은 상보와 달리 개체의 다름을 보편적 원리를 통해 하나의 모순 없는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 ④ 상보는 쟁론과 달리 성곽 안의 공간에서 개체가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 ⑤ 쟁론과 상보는 모두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미지의 대상을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둔다.

32. 다음은 윗글을 읽은 A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와 이에 대한 상호 평가 결과이다. 평가가 올바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활동 과제] '도시의 논리'와 '야생의 논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보자.		
A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 내용		상호 평가
공 통 점	◦ '도시의 논리'와 '야생의 논리'에서는 모두 집단의 질서를 우선시하여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적절함㉠
차 이 점	◦ '도시의 논리'에서는 '야생의 논리'와 달리 개체들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났다.	적절함㉡
	◦ '야생의 논리'에서는 '도시의 논리'와 달리 수직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려고 했다.	부적절함㉢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3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 간 정체성이 충돌할 때 다른 개체의 정체성을 우선하여 따른다.
- ② 개체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춰 대상에 카리스마를 부여하여 기생한다.
- ③ 여러 개체들이 각인해 온 존재 양식을 모두 수용할 때까지 정체성에 대한 규명을 유보한다.
- ④ 개체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는다.
- ⑤ 카리스마를 부여받아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에 맞춰 개체의 정체성이 가변적으로 정해진다.

3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라져
- ② ㉡: 이어받은
- ③ ㉢: 옮겨
- ④ ㉣: 바로잡기
- ⑤ ㉣: 뛰어난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주로 뉴스나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경험한다. 타인의 고통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와 같은 간접 경험으로부터 연민을 갖기는 쉽다. 더구나 현대 사회는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문한다. 이런 존중의 문화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현대 사회는 소박한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들의 안락하지만 황량한 요양소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연민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가지각색이지만, 다수의 학자들에 따르면 연민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생긴다. 먼저 타인의 고통이 그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닥친 비극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비극이 언제든 나를 엄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연민의 감정은 무더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보며, 자신은 그러한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연민은 생길 수 있으며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둘째, 행복과 불행이 과거보다 사람들의 관계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㉔ 친밀성은 줄었지만 사회·경제적 관계가 훨씬 촘촘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현대인은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불행까지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간접 경험에서 연민을 갖기가 어렵다고 치더라도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연민의 필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㉕ 연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그만큼 가치도 높다.

진정한 연민은 대부분 연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연대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연대는 멀리하면서 감성적 연민만 외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뒤섞이지 않도록 두 집단을 분할하는 벽을 쌓는다. 이 벽은 자신의 불행을 막으려는 방화벽이면서, 고통받는 타인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성벽이다. '입구 없는 성'에 출구도 없듯, 이들은 성 바깥의 위험 지대로 나가지 않는다. 이처럼 안전지대인 성 안에서 가진 것의 일부를 성벽 너머로 던져주며 자족하는 동정도 가치 있는 연민이다. 그러나 진정한 연민은 벽을 무너뜨리며 연대하는 것이다.

16.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가 위협해지면 연민은 많아진다.
- ② 동정으로 끝나는 연민도 가치가 있다.
- ③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 ④ 연민은 가까운 사람에게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 ⑤ 연민은 동양과 서양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17. ㉕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은?

- ①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피부암 환자가 많아졌다.
- ② 행위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 ③ 뉴스를 통해 이주민의 고통을 알게 된 사람이 많아졌다.
- ④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이전보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 ⑤ 공장 이전으로 직장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다.

1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경수'를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경수는 어떤 할머니의 고통을 소개하는 방송을 보았다. 경수는 할머니가 불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할머니 자신의 탓이고, 그 불행이 자기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느껴져서 방송 도중 전화 모금에 참여했다. 마음은 뿌듯했지만 경수의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 ① 불행의 원인을 사회적 관계에서 찾지 않는 아쉬움이 있군.
- ②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연민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불행을 연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군.
- ④ 연민 때문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연대로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군.
- ⑤ 타인의 비극이 나를 엄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이도 연민을 가질 수 있군.

19. 밑줄 친 말 중, ㉖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그 사람과는 너나들이하는 사이다.
- ② 그들은 데면데면하게 수인사를 나누었다.
- ③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걸돈다.
- ④ 석 달 동안 헤어져 있었대서 설면할 것은 없으려만는.
- ⑤ 그 일이 있는 후로 그 사람과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있어.

◆ 13년 3월 고2 22~24번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무지로부터 비롯된 자연에 대한 공포가 종교적 세계관을 낳았지만, 계몽주의는 이성과 합리성을 통해 이를 극복하였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성립된 ① 근대 계몽주의는 중세를 지배했던 신(神)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인간 해방을 추구하였다. 계몽주의의 합리적 사고는 자연과학의 성립으로 이어졌으며, 우주와 자연에서 신비로운 요소를 걷어낸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부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 같은 문명의 이면에는 환경 파괴와 물질만능주의, 인간소외와 같은 근대화의 병폐가 숨어 있었다.

이에 대해 프랑크푸르트학파로 대표되는 비판이론가들은 계몽주의의 이성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본다.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대상을 도구화하고 수단의 효율성만 중시했다는 점에서 계몽주의의 이성을 ‘도구적 이성’으로 규정하며 그 폭력성을 고발한다. 이성에 대한 과신이 자연과 인간이 지니는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망각하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자신이 속한 프랑크푸르트학파를 계승하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도 계몽주의의 일방적인 이성주의는 반대한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앞선 시대의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이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고 편향되게 이해한 것에 반대하고, 이성의 힘을 긍정하며 ‘의사소통적 이성’을 제안하였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진정한 사회의 진보는 의사소통적 이성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공론화하여 자율적 합의를 통해 장애 요소를 공동으로 제거해 나갈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의사소통적 이성이야말로 도구적 이성으로 인해 빚어진 사회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인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적 이성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버마스는 여기서 ‘이상적 담화 상황’을 전제한다. 화자와 청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의견 차이를 좁혀갈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화 참여자들이 일정한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담화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담론윤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듯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이성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2.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는 새로운 이론의 특징을 진술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증거를 활용하여 통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이론을 소개한 후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다.
- ④ 이론의 핵심을 유추의 방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23. ㉠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합리적 사유를 통해 인간 해방은 가능하다.
- ②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효율성은 중요하다.
- ③ 이성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근대화의 병폐를 야기한다.
- ④ 자연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다.
- ⑤ 우주의 원리는 신의 섭리가 아닌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24. <보기>에 대한 ‘하버마스’의 반응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것은? [3점]

<보 기>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확산되면서 대중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제약 없이 토론함으로써 ‘디지털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수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뛰어난 지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집단지성’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익명성의 속성으로 인해 대중들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울 경우에는 현실의 규범들로부터 쉽게 이탈할 우려도 있다.

- 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SNS로 자유롭게 소통한다면 이상적인 담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집단지성은 의사소통적 이성으로 인해 빚어진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여 사회를 진보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 ③ 디지털 민주주의는 대화 참여자들이 자율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함께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④ 만약 익명성에 기대어 의사소통의 주체들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한다면 윤리적인 담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 ⑤ 인터넷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공론화할 수 있어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19년 9월 고3 41~45번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정치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를 뽑아 정부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회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 바디우는 ㉠ ‘사건’을 계기로 ㉡ ‘진리’가 만들어지면서 사회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바디우에 따르면, 사건이란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일이면서 미리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사건은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것으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지만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다. 바디우는 사건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사회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사건의 대표적 예로 18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파리고뮌을 들고 있다.

바디우는 기존의 사회 구조를 벗어나는 독특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이 사건을 전에 없던 ‘이름’으로 부르고 이 이름은 사건이 사라진 후에도 사회에 흔적으로 남는다고 본다. 사건이 사라지고 난 후, 개인이나 집단은 사건의 이름을 통해 사건을 떠올리며 사회 안의 각 요소들과 사건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시도를 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안의 제도, 행위, 발언 등을 검토하여 그것이 사건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 안의 요소들 중에서 사건에 충실한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를 가려내는 이러한 작업을 바디우는 ‘탐색’이라고 부르고, 탐색의 판단 기준을 ‘충실성’이라고 부른다. 이때 탐색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회 안의 특정한 요소를 선택해 그것의 충실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요소들이 사건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조사한다.

바디우는 탐색을 통해 사건에 충실한 것으로 분류된 요소들이 진리를 ㉢ 이룬다고 말한다. 즉 바디우에게 있어 진리란 거짓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탐색의 결과이자 사회 안에서 사건에 충실한 요소들

의 집합체이다. 바디우는 이러한 진리는 정치 이외에도 과학, 예술, 사랑의 영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바디우는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진리 절차에서 진리를 이루는 부분들을 '주체'라고 부른다. 진리를 만들어 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발언 중에서 충실한 요소들이 모여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신이 곧 주체는 아니며, 그 사람의 행위나 발언 중 사건에 충실한 것만이 주체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바디우의 시각이 개인을 보잘것없게 만든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㉔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활동은 정치적 주체의 일부이면서 예술적 주체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디우는 자신의 철학을 펼치면서 사건은 진리가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연한 사건보다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리라고 말한다. 이는 바디우가 말하는 '용기'의 중요성과도 연결된다. 바디우에게 있어 용기란 진리를 좇는 용기, 즉 사회 안의 요소들을 진리에 속하는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용기이다. 결국 바디우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41. 윗글에 제시된 '바디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은?

- ① 정치의 목적은 정부 운영을 잘하는 것이다.
- ② 사건은 사회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의미가 있다.
- ③ 개인은 사회 안의 제도나 행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 ④ 거짓이 아닌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진리 절차라고 한다.
- ⑤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42. ㉑과 ㉒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㉒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발점이 된다.
- ② ㉑은 ㉒이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㉑ 자체가 ㉒은 아니다.
- ③ ㉒을 이루는 요소는 ㉑을 이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된 것들이다.
- ④ ㉑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며 ㉒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진다.
- ⑤ ㉒보다 ㉑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

43. ㉓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을 하나의 진리 절차에 헌신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② 개인을 사회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③ 개인을 다수의 진리 절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④ 개인을 진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⑤ 개인을 진리에 부합하는 행위에만 동참하는 도덕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4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프랑스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프로이센과 굴욕적인 화평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임시 국방정부의 수반인 아돌프 티에르가 국민 방위군의 무장 해제를 명령하고 수비대가 보유하고 있던 대포를 철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은 몽마르트 언덕에 모여 자연 발생적인 민중 행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시청을 점거하고 혁명적 자치 정부를 수립하여 여성 참정권 실현, 아동 야간 노동 금지 등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자치 정부는 두 달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다. 이 일은 역사에서 시민 계급이 자치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최초라고 평가되며 '파리코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 ①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에 의해 혁명적 자치 정부가 수립된 일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았겠군.
- ② 바디우는 '파리코뮌'이라는 이름은 파리 시민들의 자연 발생적인 민중 행동이 사회 안에 남긴 흔적이라고 보았겠군.
- ③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이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연합하여 일으킨 '파리코뮌'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한 결과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겠군.
- ④ 바디우는 프랑스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여러 요소들과 '파리코뮌'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진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겠군.
- ⑤ 바디우는 현재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파리코뮌'을 이어 가기 위한 탐색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보았겠군.

45. ㉔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성(構成)한다고
- ② 성취(成就)한다고
- ③ 탐구(探究)한다고
- ④ 포괄(包括)한다고
- ⑤ 표방(標榜)한다고

◆ 20년 4월 고3 33~37번

[33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자 악셀 호네프는 현대 사회는 개인이 자아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병리적 사회가 되었으며, 그 원인이 무시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대 사회가 병리적 사회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인정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네프는 어떤 점에서 사회적 인정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한다고 보았을까?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개인의 자아 형성 과정을 ‘목적적 나’와 ‘주격 나’의 관계를 통해 밝힌다. 여기서 목적적 나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생각과 기대를 일반화하여 형성한 자아상을 말한다. 즉 목적적 나란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아상이다. 그리고 주격 나란 목적적 나에 반응하여 자아를 형성하기 이전의 자아상으로, 개인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그래서 주격 나란 목적적 나를 내면화하여 자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주격 나가 목적적 나에 반발할 수도 있다. 주격 나가 목적적 나에 반발할 때는, 주격 나가 새로운 자아상을 목적적 나에게 주장할 수 있고 목적적 나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개인은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호네프에 의하면 개인의 주격 나가 목적적 나에 반응하여 자아를 형성하는 데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 즉 개인과 타인의 상호 인정이 전제된다. 그래서 개인은 상호 인정 관계에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고, 상호 인정 관계에서 자아를 형성한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호 인정 관계에서 개인이 사회적 무시를 경험하면, 해당 개인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의식이 파괴된다.

호네프는 상호 인정 관계와 이에 따른 긍정적 자기의식을 세 가지로 유형화한다. 첫 번째는 원초적 관계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정서적 배려를 받음으로써 구체적인 욕구와 본능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는 상호 인정 관계이다. 원초적 관계에서 정서적 배려를 경험한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정서가 충족될 수 있고, 언제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신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학대나 폭행과 같은 무시를 경험하면 자신감은 파괴된다.

두 번째는 권리 관계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옳고 그름의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인격체로서 법적 권리를 존중받는 상호 인정 관계이다. 권리 관계에서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개인은, 사회로부터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자기존중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개인이 마땅히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법적 권리가 사회로부터 부정되는 무시를 경험하면 자기존중감은 파괴된다. 세 번째는 가치 공동체 관계로, 개인이 어떤 가치나 목적을 공유한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자신의 개성, 즉 능력과 속성을 인정받는 상호 인정 관계이다. 개인은 자신이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 사회적 연대를 경험하며, 이를 통해 해당 개인은 자신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인 자부심을 형성한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속성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부정되는 무시를 경험하면 자부심은 파괴된다.

호네프는 이처럼 세 가지 상호 인정 관계에서 개인이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때, 개인은 성공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상호 인정 관계에서 무시에 의해 개인의 긍정적 자기의식이 파괴되면 개인은 자아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개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인정질서에 저항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정질서란 개인의 자아를 인정 대상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나 원칙이다. 호네프는 개인이 새로운 자아상을 기존 인정질서에 주장하면 개인은 기존 인정질서와 대립할 수밖에 없고, 개인의 저항은 기존 인정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자아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모든 저항을 ① 인정투쟁이라고 명명한다. 특히 그는 권리 관계나 가치 공동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정투쟁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인정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호네프는 인정투쟁이 현대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회복시키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33.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관점에서 자아와 자기의식 형성 방법을 소개하며, 자기의식 형성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 ② 특정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과 자기의식을 유형화하며, 자기의식과 자아실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특정 관점에서 자기의식의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기의식이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특정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을 역사적 변천에 따라 설명하고, 자아 형성 과정의 특징과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 ⑤ 특정 관점에서 자아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며, 자아 형성 과정과 자기의식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34. 윗글을 바탕으로 무시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저항의 결과이다.
- ② 무시는 현대 사회를 병리적 사회로 만드는 원인이다.
- ③ 무시는 개인이 원초적 관계에서 형성한 자신감을 파괴한다.
- ④ 자신의 능력과 속성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부정되는 것은 무시에 해당한다.
- ⑤ 개인이 마땅히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은 무시에 해당한다.

[35 ~ 36] 밑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35번과 36번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 기 >

[자료 1]

A 씨는 도예가인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전통 도예 기술을 전수받으라는 부탁을 받았다. 존경하던 아버지께 인정받아 기뻐지만 걱정도 앞섰던 A 씨는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버지 덕분에 믿음을 갖고 기술을 익혔다. 결국 A 씨는 아버지의 장인정신을 계승한 도예가가 되었고, 장인정신을 중시하는 도예가 협회로부터 올해의 장인으로 선정되어 공지를 느꼈다.

[자료 2]

이민자 B 씨는 △△시로부터 이민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상심했다. 하지만 B 씨는 이웃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이 언제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수 있었다. 이후 여러 이민자들이 가세하여 시위가 확대되었고, 결국 △△시는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이민자들에게 승인하였다. 이에 B 씨는 자신이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다.

35. 밑글의 ‘목적적 나’와 ‘주격 나’의 관계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 1]: A 씨의 ‘주격 나’는 가족들의 기대를 일반화하여 ‘목적적 나’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자료 1]: A 씨의 ‘주격 나’가 ‘목적적 나’를 내면화하여 자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A 씨와 아버지가 상호 인정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자료 2]: B 씨의 ‘주격 나’는 △△시로부터 형성한, 이민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는 ‘목적적 나’에 반발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자료 2]: B 씨가 시위를 한 이유는 B 씨의 ‘주격 나’가 주장한 새로운 자아상이 △△시로부터 형성한 ‘목적적 나’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자료 2]: B 씨가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승인받은 것은 B 씨의 ‘주격 나’가 주장하는 새로운 자아상을 △△시로부터 형성한 ‘목적적 나’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6. 밑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자료 1]의 A 씨와 [자료 2]의 B 씨는 모두 원초적 관계에서 정서적 배려를 받아 자신감을 형성했겐.
- ② [자료 1]과 달리 [자료 2]에서는, 권리 관계에서 파괴되었던 긍정적 자의의식을 회복한 것이겠군.
- ③ [자료 1]과 달리 [자료 2]에서는, 기존 인정질서에 대한 개인의 저항이 기존 인정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된 것이겠군.
- ④ [자료 2]와 달리 [자료 1]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개인의 가치 범위가 확장되어 새로운 인정질서가 형성된 것이겠군.
- ⑤ [자료 1]의 A 씨는 도예가 협회로부터 올해의 장인으로 선정됨으로써 자부심을, [자료 2]의 B 씨는 △△시로부터 내국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승인받음으로써 자기존중감을 형성했겐.

37. 밑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홉스는 인간들이 갖는 동일한 욕망이 서로 충돌할 때, 서로가 적이 되어 ㉠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투쟁은 지속적 불안 상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일부 양도하고 사회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① 호네트는 ㉠을 불안이 지속되는 상태로, 홉스는 ㉡을 불안이 해소된 상태로 보고 있군.
- ② 호네트는 ㉠에 의해 개인이 상대에게 굴복하게 되고, 홉스는 ㉡에 의해 개인이 상대와 공존하게 된다고 보고 있군.
- ③ 호네트는 ㉠의 결과 개인이 인정질서를 확장한다고, 홉스는 ㉡의 결과 개인이 사회 질서에 복종하게 된다고 보고 있군.
- ④ 호네트는 ㉠으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홉스는 ㉡으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 전체를 포기하게 된다고 보고 있군.
- ⑤ 호네트는 ㉠을 자아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홉스는 ㉡을 개인의 욕망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군.

◆ 20년 9월 고1 37~41번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나 아렌트는 정치를 어떤 관점에서 사유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철학적 지평을 열어 준 철학자이다. 아렌트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렌트에 따르면 정치는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공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아렌트가 이것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바로 행위의 가능성이다. 그녀는 인간의 활동으로 ‘노동’, ‘작업’, ‘행위’를 제시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간의 실존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생각하는 노동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물적 활동이다. 노동은 자기 보존의 수단일 뿐이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산과 소비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 속에 종속된 것이다. 작업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삶의 편의를 위해 물건과 결과물을 만드는 것으로 자연과 구분되는 인간 세계를 구축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행위는 다른 존재들과 상호소통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녀는 행위가 노동, 작업과 달리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오직 행위만이 타인의 지속적인 현존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고 밝힌다. 그리고 노동과 작업을 사적인 것으로, 행위를 공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공적 영역으로 규정한다.

아렌트는 이러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영역

이 공간적으로 분리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모델을 고대 그리스의 가정과 폴리스*의 구분에서 찾았다. 그녀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가정을 노동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으로 인식했으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노동은 인간이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연성의 구속을 받고, 작업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유용한 것만을 생산해야 한다는 필연성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획일성이 지배하는 불평등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이에 반해 폴리스는 공적 영역으로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아렌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했지만, 그렇다고 사적 영역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고, 가정에서 삶의 필연성을 충족한 시민들이 폴리스라는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겼다. 가정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폴리스에서 다른 시민들을 만나 함께 공적인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결정했다. 이때 자유롭다는 것은 삶의 필연성에서 벗어나 어떠한 강제나 강요도 없이 시민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폴리스라는 공적 영역에서 언어적 소통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내가 누구인지, 내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렌트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정치라고 보았다. 결국 고대 그리스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행위를 통해 자유를 실현한 것처럼 아렌트는 정치의 본질을 자유의 실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렌트는 근대 이후에 '사회'가 출현했고, 이 사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정치의 의미가 왜곡되었다고 진단한다. 왜 아렌트는 사회의 출현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일까? 그것은 그녀가 사회를 경제적으로 조직된 여러 구성원의 거대한 가족 결합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정의 활동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노동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기에 경제 활동은 본래 사적 영역에서의 활동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서의 경제 활동이 근대에 이르러 사회가 출현하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공적 영역으로 옮겨갔고 이로 인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경제 활동이 행위의 공간이었던 공적 영역에 자리하게 되면서 공적 영역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아렌트의 분석이다.

결국 아렌트가 말하는 사회의 문제점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사회가 등장하며 새롭게 나타난 활동 양식을 '행동'이라 부른다. 행동은 행위가 일어났던 공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오로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가 지배하는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위해 행위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철저하게 경제화된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궁극적으로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박탈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에서의 행동은 결코 행위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은 오직 공적 영역에서만 자신의 행위 가능성을 보존하고 자유 실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렌트가 말하는 공적 영역을 우리가 회복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 폴리스: 고대 그리스에서 지역별로 도시 국가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치 공동체.

3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철학자의 정치 이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그의 견해가 지니는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철학자가 제시하는 인간 활동의 유형을 비교하고 그의 정치 이론이 지닌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 ③ 특정 철학자가 밝힌 정치와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고 그가 비판하는 근대 이후 사회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 ④ 특정 철학자의 정치와 관련된 가설을 소개하고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⑤ 특정 철학자가 분석하는 정치 체제의 발달 단계를 고찰하고 근대 이후 사회에서 필요한 정치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 ② 정치는 사람들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다.
- ③ 정치는 인간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 ④ 행위는 언어적 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 ⑤ 행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연성의 구속을 벗어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39. '한나 아렌트'의 견해에 대해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창조적 존재이다. 인간에게 노동은 물질적 생활을 충족시키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세계를 만드는 활동이다. 또한 노동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삶의 방식으로 노동을 통해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노동으로 인간은 자유를 실현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 ① 당신은 노동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보지만, 노동은 인간에게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 ② 당신은 노동을 정치적 활동으로 보지만, 노동은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충족시켜 줍니다.
- ③ 당신은 노동을 삶의 편의를 위해 물건을 만드는 활동으로 보지만, 노동으로 인간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④ 당신은 노동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활동으로 보지만, 노동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⑤ 당신은 노동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지만, 노동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삶의 방식을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40.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들은 사회에서 행위를 하기 어렵겠군.
- ② 사람들은 사회에서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군.
- ③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가정에서 했던 경제 활동을 사회에서 하겠군.
- ④ 사람들은 시장 경제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겠군.
- ⑤ 사람들은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가치만을 추구할 뿐 다양한 관점은 갖지 못하겠군.

41. 윗글의 ‘한나 아렌트’와 <보기>의 ‘공자’, ‘플라톤’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공자는 부자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정치로 간주하였고, 이러한 사랑이 국가 차원으로 확장된다고 여겼다. 즉 국가는 가정의 확장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구분할 수 없고 가정에서의 관계 맺음은 정치 체제의 근본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플라톤은 정치와 관련하여 사적 영역인 가정을 이상 국가를 만드는 데 방해물로 보았다.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데 가정은 개인의 욕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정치가들에게 자식과 재산을 공유할 것을 주장하며, 공적인 것을 위해 사적인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① ‘공자’와 달리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군.
- ② ‘공자’와 ‘한나 아렌트’는 모두 사적 영역에서도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군.
- ③ ‘공자’와 ‘한나 아렌트’는 모두 가족 구성원의 관계 맺음을 정치로 인식하고 있군.
- ④ ‘플라톤’과 달리 ‘한나 아렌트’는 공적인 것을 위해 사적인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군.
- ⑤ ‘플라톤’과 ‘한나 아렌트’는 모두 사적인 것을 공유해야만 공적인 영역에서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군.